

‘부부’와 ‘내외’의 사회언어학적 분포*

이 정 복

- | | |
|------------------|------------------------|
| 1. 머리말 | 4. 용법의 정리 및 분포차에 대한 해석 |
| 2. 어휘적 의미의 분석 | 5. 맺음말 |
| 3. 실제 쓰임과 분포의 분석 | |

1. 머리말

우리말에서 지시 대상이 같거나 의미가 비슷한 두 낱말이 높임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과 ‘택’(宅), ‘이름’과 ‘성함’(姓銜), ‘나이’와 ‘연세’(年歲), ‘머리’와 ‘두상’(頭上), ‘눈빛’과 ‘안광’(眼光)이 그 예이다. 각 쌍에서 앞쪽은 순우리말이며 뒤쪽은 한자어이다. 순우리말 낱말이 한자어에 비해 높임의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¹⁾

이와 달리 같은 한자어인데도 높임의 정도가 다르게 쓰이는 낱말들도 있다.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병’(病)과 ‘병환’(病患), ‘부부’(夫婦)와 ‘내외’(內外)가 대표적이다. ‘생일’이나 ‘병’보다 ‘생신’이나 ‘병환’이 더 높게 쓰이는 것은 국어 화자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러나 ‘부부’와 ‘내외’가 높임의 정도에서 구별되어 쓰이고 있음은 상당히 낮은 사실이며, 또 그러한 차별적 용법이 우리말 화자들에게 널리 퍼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말 사용에서 이

* 이 글은 한국어문학회 전국발표대회(2001. 10. 27. 대구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부분적으로 고친 것이다. 초고를 읽고 좋은 의견을 내어 준 신종진 선생과 논문 발표 때 지정 토론을 맡아 도움말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1) ‘고마움’과 ‘감사’(感謝)도 같은 관계에 있다. 이정복(2000)에 의하면 감사 표현에서 ‘고마움’이 ‘감사’보다 경어법의 면에서 낮은 형식으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두 낱말이 경어법의 기능 부담량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있다.

이 논문은 ‘부부’와 ‘내외’라는 두 낱말의 사회언어학적 분포가 다름을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낱말이 어떤 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구별되어 쓰이는지를 사례 분석 방법과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부부’와 ‘내외’ 모두 지시적 용법에서 부름말로 쓰이지 않고 가리킴말로 쓰이는 점에서 분석 대상 사례는 일반 명사로서의 용법과 가리킴말로서의 용법에 한정된다.

다음 2장에서는 두 낱말의 어휘적 의미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실제 쓰임을 사례 및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는 한국과학기술원 공개 ‘현대 국어 말뭉치’(Kaist corpus of modern Korean, 300메가바이트), 주요 신문의 기사, 청와대 보도자료 등이다. 청와대 보도자료는 1998년부터 2001년 3월까지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자료 가운데서 ‘부부’와 ‘내외’가 포함된 96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신문 기사 자료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2001년 2월과 3월 두 달치 가운데서 역시 두 낱말이 포함된 것을 수집·분석하였다.²⁾

2. 어휘적 의미의 분석

‘결혼한 한 쌍의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는 ‘부부’, ‘내외’ 밖에도 ‘부처’(夫妻), ‘이인’(二人), ‘항배’(伉配), ‘가시버시’, ‘남진겨집’ 등이 있다.³⁾ 이 가운데서 현재 많이 쓰이는 대표적 형식이 ‘부부’와 ‘내외’이다. 국어사전에 기술된 두 낱말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본다.

2) 세 가지 유형의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공개 말뭉치: 한국과학기술원 자연언어처리 연구실 운영 「한국어 형태소 분석」 <http://morph.kaist.ac.kr/~morph>, 신문 기사: 한국언론재단 운영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 청와대 보도자료: 「청와대 자료실」 <http://www.cwd.go.kr/korean/data>

3) 이들 낱말 밖에도 가끔 서양 외래어 ‘커플’(couple)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커플’은 ‘부부’는 물론이고 결혼하지 않은 애인 사이거나 단순히 운동 경기에 출전한 한 쌍의 남녀를 가리키기도 하는 등 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1) '부부'의 의미에 대한 사전 기술

- 가. 결혼한 한 쌍의 남녀. 곧,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아울러 이르는 말. 『금성판 국어대사전』
- 나. 결혼해서 같이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연세 한국어사전』
- 다. 남편과 아내.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세 사전에서 '부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기술된 의미는 '남편과 아내'이다. 즉 '남편'과 '아내'를 함께 이룰 때 쓰는 낱말이 '부부'라 본 것이다.⁴⁾ 이희승 선생이 편찬한 사전에서 '부부'를 법률 용어의 하나로 추가적 의미를 설명한 외에는 다른 의미 해설은 찾아볼 수 없다.

(2) '내외'의 의미에 대한 사전 기술

- 가. 아내와 남편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 『금성판 국어대사전』
- 나. 아내와 남편. 『연세 한국어사전』
- 다. 부부(夫婦).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세 사전에서 '내외'는 '부부'의 의미였던 '남편과 아내'를 '아내와 남편'으로 순서만 바꾸어 기술하였거나 '부부'를 그대로 의미 설명에 이용하였다. 어휘적 의미에서 '부부'와 '내외'는 지시 대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표제항 '내외'에서는 그 하위 의미가 적어도 세 가지로 기술되고 있는데, '안과 밖', '나라 안과 나라 밖'에 이어 세 번째로 '부부'의 의미가 나타났다. 이것은 '내외'가 본래부터 '아내와 남편'이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 이차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말한다. 즉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직접 나타내는 한자어 형태소의 결합체로서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내외'는 단지 '안'과 '밖'이라는 일차적 의미의 결합체가 사람에게 확대·전이되어 쓰이는 것으로 비유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⁵⁾ '내외'보다는 '부부'가

4) 중세 국어 시기에는 '부부'의 의미로 '남진겨집'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시언해』에서는 원문의 “結髮爲夫婦”를 “머리터리를 미자 남진겨지비 드외요니”(8:67)로 풀이하였다. 현대 국어 이전 시기에 한자어 '부부'나 '부처'도 사용되었다. “엇디 부뷔 되며”(『태평광기언해』 1:65), “부쳐논 연분을 미자”(『경민편언해』 2) 참조

5) 조선시대 양반집에서는 아내는 '안채'에서 생활하고 남편은 대문에 가까운 '사랑'

직접적,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실제 쓰임에서 보다 높은 빈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런 차이는 두 낱말이 구성요소로 참여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복합어의 수에 그대로 반영된다.

(3) '부부'가 포함된 어휘 항목

가. 부부간, 부부 공동 입양, 부부 교환, 부부 별산제, 부부성, 부부애, 부부유별, 부부 재산 계약, 부부 재산제, 부부지간, 부부지약, 부부지정, 부부 합산 과세 「금성판 국어대사전, 13항목」

나. 부부동반, 부부 생활, 부부애 「연세 한국어사전, 3항목」

다. 부부간, 부부 공동 입양, 부부 교환, 부부 기대 여명, 부부애, 부부유별, 부부 재산 계약, 부부 재산제, 부부지간, 부부지약, 부부지정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 11항목」

세 사전 가운데서 '금성판'에서 13항목의 '부부' 포함 복합어가 실려 있으며, '연세판'에서는 3항목이 실려 있어 가장 적다. 이들 세 사전에 실린 '부부' 포함 복합어의 수는 평균 9항목이다.

(4) '내외'가 포함된 어휘 항목

가. 내외간, 내외궁, 내외분, 내외지간 「금성판 국어대사전, 4항목」

나. 내외간, 내외분 「연세 한국어사전, 2항목」

다. 내외간, 내외분, 내외지간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 3항목」

'내외'가 포함된 어휘 항목은 '부부'에 비하여 훨씬 적다. 최다 4항목에서 최소 2항목이 실려 있다. 평균 복합어 수는 3항목이다. 이와 같이 두 낱말이 결합된 복합어 수에서 '부부'는 '내외'보다 3배나 많다.⁶⁾ 그만큼 '부부'가 분포가

체'에서 지냈다. 부부 사이의 이러한 공간 관계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낱말이 '내외'라 할 수 있다. '내외'를 순우리말로 표현한 '안팎'이 '부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세상에 남 부럽지 않게 살려면 그저 안팎이 같이 버는 게 수라는 소리를 [...]". 한국과학기술원 공개 말뭉치). 그 수가 극히 적었다. 구성 방식이 비슷한 말로는 '안부모-바깥부모', '안사돈-바깥사돈', '안주인-바깥주인', '안어버이-바깥어버이' 등이 있다.

6)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에서 '부부'가 복합어 형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에 비해 '내외'는 그러지 못한 사실과 관련된다. '부부'는 일종의 '형성소'로 '내외'는 '구성소'로 볼 수 있다.

넓고 쓰임의 빈도가 높으며, 국어 화자들에게 일반적인 낱말로 인식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화자들의 우리말 사용에서 두 낱말이 어느 정도의 분포 및 빈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3.2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개념의 직접성', '복합어 형성에서의 기여도'에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어법의 면에서 두 낱말 값의 차이가 사전에 기술된 것은 없다. 다만 세 사전에서 모두 '내외분'을 싣고 있으며, 이 말을 '내외'의 높임말로 기술하였다. '내외분'에 대응될 만한 '부부' 결합형으로 '부부분', '부부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실제 쓰이는 일이 없어 보인다.⁷⁾ '부부'와 '내외'가 경어법적으로 다르게 쓰인다면 두 낱말의 어떤 의미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두 낱말의 특성과는 별도로 어떤 사회언어학적 요인 때문인지를 실제 쓰임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 보기로 하겠다.

3. 실제 쓰임과 분포의 분석

1) 사례 분석

'부부'와 '내외'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자료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유형은 '현대 국어 말뭉치', '신문 기사', '청와대 보도자료'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다음 (5), (6)은 현대 국어 말뭉치에서의 쓰임을 보여준다.

(5) 현대 국어 말뭉치에서의 '부부'의 쓰임

가. 인근 푸른빛집에서 전두환 전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 (2835)⁸⁾

7) '내외분' 밖에 의존명사 '분'이 높임 접미사로 쓰이는 예로서 '여러분, 기사분, 남자분, 여자분, 자제분, 동네분, 형제분, 동생분, 모녀분, 모자분' 등이 더 있으나 '부부분'은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공개 말뭉치에서 '부부분'이나 '부부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의 자세한 용법에 대해서는 이희두(2000:104-111)을 참조.

8) 괄호 안의 숫자는 말뭉치 자료의 세부 파일 번호로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가-1. 그들은 국왕과 왕비이기에 앞서 부부였다. (2099)
- 나. 며느리 명의 예금을 빼면 이 장관 부부의 예금은 1천만원이 채 안된다. (195)
- 나-1. 29일 노태우 대통령의 딸 소영 씨 부부가 미국에서 외화를 숨겼다가 기소된 [...] (2835)
- 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부부 사이의 갈등도 내 잘못이래요 (3692)
- 다-1.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화기에애한 언니 부부의 수작(?)들을 볼 때마다 [...] (1983)
- 라. '갑남'과 '을녀'라는 이름의 부부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2731)
- 라-1.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재산에 관한 제약을 체결한 경우는 [...] (2747)
- 라-2. 동해 해변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았다. (2664)

말뭉치에서 '부부'는 지위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5가~나)에서 '대통령', '장관' 등의 고위직 인물들에게 사용되었고, (5다, 다-1)에서는 일반인 사이에서 1인칭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가족 관계의 상위자에게도 쓰였다. (5라)는 '부부'가 결혼한 남녀를 가리키는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낱말로 쓰임을 보여 준다. (5라-1)에서는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5라-2)의 경우 역사적인 내용에서도 '부부'가 쓰임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부부'는 결혼한 남녀를 지시하는 말로 쓰이되, 대상자의 지위나 시대 등과 관계없이 널리 쓰이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6) 현대 국어 말뭉치에서의 '내외'의 쓰임

- 가. 이인용 앵커: 김영삼 대통령 내외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 (3033)
- 가-1. 혼례 직후 3일 동안만 황제 내외가 이곳의 동원각에서 잠을 [...] (2108)
- 가-2. [...] 싱가포르의 고축동 총리 내외가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 (2837)
- 나. 저녁에는 6공 전현직 장관 및 수석비서관 내외를 초청. 만찬을 할 예정이다. (2835)
- 나-1. 이 판서가 양반의 터를 부리지 아니하여 내외는 다 걱정이의 비위에 맞았으나 [...] (64)
- 다. 행랑에 들어 있는 두 쌍의 하인 내외는 펜시리 들떠서 이리저리 집 안팎을 [...] (1201)
- 다-1. [...] 그 서쪽에 이 집의 일꾼 내외가 사는 초가가 한 채 지어져 있다. (1146)
- 라. 20년만에 한국에서 우리 내외는 고국의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다. (3675)
- 라-1. [...] 마침 오사카에 살고 계신 고모님 내외분에게도 인사도 드릴 겸해서 [...] (1937)
- 라-2. 며칠 후 저녁때가 조금 지난 시간에 아들 내외가 들어섰다. (3675)

‘내외’의 경우에도 지위, 시대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장관 등의 고위직 인물에게 이 형식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6다, 다-1)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쓰였다. (6나-1)에서는 조선시대 배경에서 사용되었다. (6라~라-2)에서는 일반인 가운데서 가족 관계의 상위자와 하위자에게 사용되었고 1인칭 용법으로도 쓰였다. 사례 분석의 면에서 현대 국어 말뭉치의 ‘부부’와 ‘내외’는 가리킴말 형성의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역사적으로 ‘부부’보다 ‘내외’가 대상 인물을 높이고자 할 때 더 많이 사용된 형식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 사실이다. 위의 (6라-1)에서 “고모님 내외분”이 보이는데 이처럼 ‘할아버지, 큰 아버지, 이모, 아저씨, 당숙, 시아주버니’ 등과 같이 상위 항렬 또는 가족 안의 상위자에 대해서 그 부부를 동시에 가리킬 때 ‘○○ 부부’가 아니라 ‘○○ 내외’ 또는 ‘○○ 내외분’을 쓴다는 말이다. ‘내외분’을 붙이는 것은 ‘부부’를 붙이는 것보다 대상 인물들을 더 높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외’를 붙이는 것도 ‘부부’를 붙이는 것보다 더 높인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부부’보다는 ‘내외’에 이른바 ‘높임의 자질’이 더 많이 내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말의 형성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에 의미의 직접성, 객관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어법적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 (5), (6)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외’가 하위자에게, ‘부부’가 상위자에게 자연스럽게 쓰이기 때문이다.

‘내외’가 상위자에게 잘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내외분’의 존재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부부’를 추가적 가리킴말로 쓸 때에는 마땅한 높임 형식이 없다. 즉 ‘부부님’이나 ‘부부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외’는 ‘내외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자에게 높여 대우할 때 이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할아버지, 큰 아버지, 이모, 아저씨, 당숙, 시아주버니’ 등의 상위자 부부를 가리킬 때 대상 인물의 현장성 및 대화 참여자 관계에 따라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내외’가 아니라 ‘내외분’이 쓰인다. 이들에게 ‘내외’를 붙이더라도 그것은 ‘내외분’을 줄인 형식으로 화자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내외’가 ‘부부’보다 경어법적으로 더 높임 형식인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내외분' 안의 높임 형식 '분'의 영향 때문인 것이다.

(7) 신문 기사에서의 '부부'의 쓰임

- 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지난해 노벨평화상 상금 등으로 11억8천4백78만원이 늘어나 총 23억2천1백33만원이 됐다. 「중앙일보, 2001. 2. 28」
- 가-1. 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가 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로 다음날 [...] 「한겨레신문, 2001. 3. 9」
- 가-2.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0일 백악관을 떠나면서 [...] 「한겨레신문, 2001. 2. 8」
- 가-3. 조선일보는 이후 해마다 1월1일치 1면에 일왕 부부의 사진을 커다랗게 실었다. 「한겨레신문, 2001. 3. 28」
- 나. 시중에 화제가 됐던 한 장관 부부의 '평등한 가정'은 많은 투쟁의 결과였다고 웃었다. 「한겨레신문, 2001. 2. 7」
- 나-1.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38) 씨 부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주택 지역인 팰러스버더스에 [...] 「한겨레신문, 2001. 3. 21」
- 다. 당시 다가구주택에는 303호 김수암(90) 박연리(여·83) 씨 부부 등 14명이 화염과 연기 속에 갇혀 있었다. 「조선일보, 2001. 3. 7」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부부'의 용법을 살펴보면, 지위 면에서 대통령 등의 최상위층과 장관 등의 상위층,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모두 이 형식이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현대 국어 말뭉치 안의 용법과 차이가 없다.

(8) 신문 기사에서의 '내외'의 쓰임

- 가. 로댐 형제가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내외를 만나고 [...] 「중앙일보, 2001. 2. 28」
- 가-1. 이날 저녁 김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모임을 가졌다. 「중앙일보, 2001. 3. 15」
- 가-2. 이날 리셉션엔 아키히토 일왕 내외가 주빈으로 참석해 노르웨이 국왕의 상대역을 했다. 「조선일보, 2001. 3. 29」
- 나. 송파구는 일부 방송에 이유태 구청장 내외와 직원들의 '외유출장'이 보도된 [...] 「조선일보, 2001. 2. 28」
- 다. 2층은 시부모(70, 68세)가 시할머니(87세)와 지내고, 3층에선 조씨 내외와 그의 딸,아들이 산다. 「중앙일보, 2001. 3. 12」

'내외'의 경우에도 지칭 대상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사용되었다. 신문 기사에

서도 두 낱말은 용법 및 분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다)의 “조씨 내외”에서 ‘내외’는 단지 ‘남편과 아내’를 나타낼 뿐 다른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다만, 신문 기사에서는 ‘부부’에 비하여 ‘내외’의 용례가 극히 적은 점이 특징이다. 이 사실은 현대 국어에서 갈수록 ‘부부’가 보다 널리 쓰임에 비해 ‘내외’의 쓰임이 전반적으로 제약됨을 알려 준다.

현대 국어 말뭉치와 신문 기사에서 ‘부부’와 ‘내외’가 분포 차이를 별로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9) 청와대 보도자료에서의 ‘부부’의 쓰임

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 5명이 부부동반으로 만찬을 한 것은 처음이다. (1998. 7. 31)

나.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저녁 청와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부부를 비롯한 장차관 부부 등 200여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2000. 12. 28)

나-1.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저녁 서영훈 대표최고위원 부부를 비롯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부부 2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2000. 9. 26)

나-2.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12월 3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성태 국방장관, 조영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 부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1999. 12. 3)

다. 김대통령, 일선 유공공무원 부부 초청 오찬 (1998. 12. 29)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부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다. 전·현직에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부부’를 직접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9가)에서 “전직대통령 5명이 부부동반으로”와 같은 간접적 지시 표현만 일부 나타났을 뿐이다. 그 대신 총리나 장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직 인물에게 이 형식이 사용되었고 “일선 유공공무원 부부”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한 차례 사용되었다.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을 만난 일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이 형식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0) 청와대 보도자료에서의 ‘내외’의 쓰임 ①

가. 김대통령 내외,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참석/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는 [...] (1999. 5. 5)

가-1. 김대통령 내외분, 2000년 적십자 회비 전달 (2000. 1. 19)

가2. 전직 대통령 내외분 만찬시 말씀내용 (1998. 7. 31)

나.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저녁 아르놀도 알레만(Arnoldo Aleman) 니카라과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2000. 5. 15)

나1. 베트남 국가주석 내외 초청 만찬 대통령 만찬답사 (1998. 12. 16)

나2.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내외 국민 방한 (1999. 11. 8)

나3. [아키히토] 일본 천황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1998. 10. 7)

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저녁 방한중인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2000. 10. 18)

다1. [르블랑] 캐나다 총독 내외 주최 국민오찬 답사 (1999. 7. 6)

다2.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 내외 주최 만찬 답사 (1999. 7. 6)

라. 독일 헷센 주 총리 내외 주최 오찬 대통령 답사 (2000. 3. 8)

라1. 김 대통령, 베를린 시장 내외 주최 오찬 참석 (2000. 3. 9)

‘내외’는 ‘부부’와 달리 우리 나라 대통령과, 외국 대통령 등의 고위 방문자들에게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 대통령에게는 ‘내외’의 높임말인 ‘내외분’도 많이 쓰였다. 외국의 대통령이나 주석(主席), 왕 등의 국가원수에게도 ‘내외’가 일관되게 쓰였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나라 총리에게 (9나)에서 ‘부부’를 붙였음에 비해 (10다)에서 외국 총리에게는 ‘내외’를 사용한 점이다. (10다1, 2)의 경우 캐나다의 ‘총독’과 ‘총리’에게 모두 ‘내외’를 붙였는데 영국 여왕을 캐나다의 국가원수로 볼 때는 3단계의 인물들에게 이 형식을 사용한 셈이다. 우리 나라 총리가 2단계 인물이라 할 때 차이가 크다. (10라)에서 장관급 정도로 볼 수 있는 ‘주 총리’에게 ‘내외’가 사용되었으며, (10라1)에서 독일의 한 지역 ‘시장’에게도 ‘부부’가 아니라 ‘내외’를 사용한 점에서 불균형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11) 청와대 보도자료에서의 ‘내외’의 쓰임 ②

가. 국민회의, 자민련 국회의원(내외) 만찬 (1998. 4. 10)

나. 김대통령, 정당 간부 내외 초청 만찬 (1998. 8. 19)

위의 예들은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보이는 ‘부부’와 ‘내외’의 일반적 용법과 거리가 있다. (9)에서 국회의원 등의 인물들에게 일관되게 ‘부부’를 붙인 것과 달리 (11)에서는 ‘내외’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온 것으로 두 낱말의 차별적 사용과 관련된 청와대 관

제자들의 '내적 언어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결과이거나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우리말의 일반적 쓰임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부부'와 '내외'를 경어법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⁹⁾ 그러한 용법의 동기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시도하기로 한다. 우선 3.2절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부부'와 '내외'가 어떤 사용 분포를 보이며, 둘을 차별적으로 사용한 정도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2) 통계 분석

먼저, '부부'와 '내외'가 세 자료 영역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며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자료 영역별 '부부'와 '내외'의 분포

구분	부부	내외	계
현대 국어 말뭉치	581(85.2)	1004(14.8)	6792(100%)
신문 기사	661(98.4)	11(1.6)	677(100%)
청와대 보도자료	27(10.6)	228(89.4)	255(100%)
합계	1243(16.1)	1243(16.1)	7724(100%)

'부부'는 전체 자료의 합계에서 '내외'보다 5배 이상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말뭉치에서 '부부'가 85%의 비율을 보였음에 비하여 최근 용법을 반영하는 신문 기사에서는 98%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점들은 '부부'가 보다 일반적인 낱말이며, 갈수록 사용 빈도가 높아져 감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⁰⁾ 한편,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내외'가 오히려 더 많이 쓰였는데, 그 차

9)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사용하는 '내외' 또는 '내외분'은 신문이나 방송 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며, 심지어 북한 언론에까지 파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남북한 신문에서 대통령 부부를 '대통령 내외(분)'으로 지칭한 용법에 대해서는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한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분석한 이정복(2001가)를 참조할 수 있다.

10)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복합어 형성에서도 '부부'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 절대 다수이다. '부부'가 일반적 형식으로 쓰이고 또 그 의미가 직접적인 점 때문

이는 약 9배에 이른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나타난 두 낱말의 양적 분포는 말뭉치나 신문 기사 자료의 그것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두 낱말을 어떤 동기나 목적에서 극도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결과라 추측된다.

이번에는, 세 자료 영역 가운데서 지칭 대상자의 신분이나 사용 맥락이 확인되는 신문 기사와 청와대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부부'와 '내외'의 지칭 대상자 지위별 분포를 조사하였다.¹¹⁾

〈표 2〉 지칭 대상자 지위별 '부부'와 '내외'의 분포: 신문 기사

구분	부부	내외	계
대통령급	28(84.8)	5(15.2)	33(100%)
장관급	19(95.0)	1(5.0)	20(100%)
일반인	195(97.5)	5(2.5)	200(100%)
합계	242(95.7)	11(4.3)	253(100%)

신문 기사 자료에서 쓰인 677개의 용례 가운데서 대상자의 신분 확인이 되는 지시적 용법은 모두 242개였다. 이에 비해 '내외'는 11개에 지나지 않는다. 비율 차이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신문에서 '부부'가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형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칭자 지위별 분포를 보면, 대통령 등의 국가원수와 장관 등의 고위직 인물에게는 일반인에 대한 용법과 비교할 때 '내외'의 상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¹²⁾ 특히 평균이 4.3%인데 비해 대통

이라 판단된다. 현대 국어 말뭉치에서 보이는 '부부'가 결합된 복합어는 '부부간, 부부갈등, 부부결합, 부부공동체, 부부관계, 부부궁, 부부동반, 부부모임, 부부묘, 부부문제, 부부방, 부부별, 부부사랑, 부부상, 부부생활, 부부신경증, 부부신, 부부싸움, 부부에, 부부욕실, 부부윤리, 부부일심, 부부재산, 부부지간, 부부집단, 부부찾잔, 부부총, 부부침실, 부부화, 부부행위, 부부회동' 등으로 많았다. 이와 달리, '내외'가 결합된 말로는 '내외간, 내외분, 내외지간, 내외지정, 내외합장'이 몇 번 나타난 정도이다.

11) 이후의 분석에서는 지시적인 용법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두 자료 영역에서 용례의 수가 〈표 1〉의 결과와 다름을 밝힌다. '부부동반', '부부관계' 등과 같이 한 낱말의 일부로 쓰였거나 "오늘날의 부부들은"처럼 불특정 다수를 지시하는 용법을 뺀 결과이다.

12) 신문 기사 자료에서 '대통령급'에는 '일왕'이 포함되었고, '장관급'에는 편의상 '부

령 등의 국가원수에게 '내외'를 쓴 비율은 15.2%로서 3배 이상이나 된다. 이것은 다음 표에서 제시할 청와대 보도자료의 언어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지칭 대상자 지위별 '부부'와 '내외'의 분포: 청와대 보도자료

구분	부부	내외	계
대통령급	0(0)	151(100)	151(100%)
총리급	1(1.8)	56(98.2)	57(100%)
장관급	19(47.5)	21(52.5)	40(100%)
합계	20(8.1)	228(91.9)	248(100%)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대통령 등에게 100% '내외'가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장관 등 고위직에게는 '부부'가 48% 사용되었다.¹³⁾ 일반인에 대한 용법은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일선 유공공무원"이 있었다[사례 (9다) 참조]. '부부'와 '내외'를 구별하여 사용하되 '내외'를 지위가 높은 인물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어법의 기능 부담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표 3〉의 내용을 지칭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분리하여 제시하면 두 낱말의 보다 뚜렷한 차별적 용법이 드러난다.

〈표 4〉 내국인 지위별 '부부'와 '내외'의 분포: 청와대 보도자료

구분	부부	내외	계
대통령	0(0)	86(100)	86(100%)
총리	1(100)	0(0)	1(100%)
장관급	19(90.5)	2(9.5)	21(100%)
합계	20(18.5)	88(81.5)	108(100%)

〈표 4〉에 의하면, 내국인에 대한 용법에서 '부부'는 총리 이하의 인물에게,

통령, '지사', '당 총재', '황태자', '재벌회장'이 포함되었다.

13)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급'에는 '주석', '국왕'이, '총리급'에는 '총독'이 포함되었고 '장관급'에는 '국회의원', '행정수반', '주 총리', '시장' 등의 고위직이 포함되었다.

'내외'는 대통령에게 뚜렷이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대통령에 대하여 86번 모두 '내외'가 사용되었고, 국회의원에게 '내외'가 두 번 예외적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총리 이하의 모든 인물에게 '부부'를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어떤 동기나 목적에서 극도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두 낱말을 사용한 결과인데, 일반 화자들에게 사용 빈도가 높은 '부부'와 차별화된 '대통령 전용 말'로 '내외'를 사용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표 5〉 외국인 지위별 '부부'와 '내외'의 분포: 청와대 보도자료

구분	부부	내외	계
대통령급	0(0)	65(100)	65(100%)
총리급	0(0)	56(100)	56(100%)
장관급	0(0)	21(100)	21(100%)
합계	0(0)	142(100)	142(100%)

외국인에 대한 두 낱말의 사용은 보다 특징적이다. 전체 142회의 용법 가운데서 '부부'가 사용된 것은 전혀 없다.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 주석, 왕 등의 국가원수와 총리, 행정수반, 주 총리, 시장 등 상당한 지위 폭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내외'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내외'는 '외교 의전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국인에 대한 용법과 비교할 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점은 인상적이라 할 만하다. 즉 내국인에 대해서는 총리 이하에게 '부부'를 사용하였음에 비하여 외국인에게는 주 총리나 시장 등의 비교적 하위 인물에게도 대통령에게만 사용했던 형식을 일관되게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 쓰임의 차이, 곧 '부부'와 '내외'의 분포 차이는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를 장을 바꾸어 분석해 본다.

4. 용법의 정리 및 분포차에 대한 해석

3장에서 이루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나온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는 전체 자료에서 '내외'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식임이 드러났다. 둘째, 두 낱말은 현대 국어 말뭉치, 신문 기사 등에서 지칭 대상자의 지위나 시대적 배경 등의 요인과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었으며, 용법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우리 나라 대통령에게 '내외'를, 총리 이하의 인물에게는 '부부'를 차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넷째,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 총리, 시장 등의 하위직 인물에게도 일관되게 '내외'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법상의 특징과 '부부'와 '내외'의 분포 차이에 대하여 그 배경이나 요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첫째와 둘째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다만 '남편'과 '아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부부'가 갈수록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말뭉치에서 차지하는 '부부'의 비중보다 신문기사에서의 그것이 더 높게 나타났고 말뭉치 자료의 경우 시대적으로 다양한 것임에 비해 신문 자료는 최근 자료인 점에서 '부부'와 '내외'의 상대적 비중 변화의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셋째와 넷째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두 낱말을 지칭 대상 인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을 다른 인물들과 구별하여 언어적으로 특별 대우를 하려는 의도의 결과이다. '내외'는, 대통령에게 '각하'를 붙인다든지 대통령이 주는 것을 '하사품'이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언어적 수단인 것이다. 곧 대통령에게 일관되게 쓰이는 '내외'는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언어적 대우를 목적으로 생겨난 '현대판 궁중말[宮中語]' 또는 '새 궁중말[宮中語]'¹⁴⁾이라 부를 수 있다.¹⁵⁾ 더욱이 '대통령 내외'가 아니라 '대통령 내외분'이 청와

14) 봉건시대의 '궁중어'가 왕 중심의 폐쇄적 언어라면 '새 궁중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나 장관 등의 고위직에게까지 파급되는 개방성을 보인다. 새 궁중말의 사회적 확산 정도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게 다루어 볼 만하다.

15) 새 궁중말의 범주에 들 수 있는 다른 용법으로는 대국민 연설 등에서 대통령이 1인칭 '나'를 쓰는 것, 언론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호칭어 '씨'를 거의 쓰지 않는 것, 대통령 부인에게 '영부인'이나 '여사'를 붙이는 것, 대통령 아들에게 '씨'를 거의 쓰지 않고 이름만으로 지칭하는 것 등이 있다. 한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권위주의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각하'를 쓰지 않고 '대통령님'을 쓰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맥락

대 보도자료에서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겨받아 보도한 신문 기사에서도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은 왕조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이다.¹⁶⁾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보도자료 전체에서 '내외'만 사용하였는데, 이 점은 외국인에 대한 언어적 특별 대우인 점에서 주목된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총리에게도 '경어법적으로 한 등급 낮다'고 생각했을 '부부'를 쓰면서도 외국인에게는 주의 총리나 시장에게도 '대통령 전용말'인 '내외'를 쓴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인다. '외교 의전용'으로 '내외'를 쓴 것이겠지만 외교 행위가 국가간의 대등한 교섭 행위인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대우는 내국인에 준하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이정복(1997가, 나)에 의하면 방송 기사에서 외국인에 대한 경어법적 대우가 한국인에 대한 것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와 비교할 때 청와대 보도자료의 외국인에 대한 언어적 특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¹⁷⁾

끝으로,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내외'가 언어 대중에게 보다 널리 쓰이는 '부부'를 제치고 대통령 전용말로 쓰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첫째, '부부'가

에서 '각하'를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대안을 찾지 못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는 '대통령님'을 공식적 호칭으로 삼은 것이다 (대한매일 1993년 10월 30일자,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2일자 참조). 그런데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여전히 외국 대통령 등에게 '각하'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 대통령을 부르거나 지시하는 경우에도 호칭으로 '대통령 각하'를 사용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또 "클린턴 대통령님 각하 내외분"과 같이 지나치게 많은 경어법 형식을 사용한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특히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큰 나라에 대한 사대의식의 표현이 아닌가 여겨진다.

- 16) 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정복(2001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김일성 주석 등에 대해서 특별히 써야 할 말들이 정해져 있다. 김동수(1983:121-130)에서는 "존경의 뜻을 가진 단어가 따로 있으면 그런 단어를 골라 써야 한다"면서 '주무시다, 계시다, 드리다, 계', '성함(존함), 안팎, 안색, 신상, 저택', '분, 이', '몸소 친히, 손수' 등을 예로 들었다.
- 17) 외국인에 대한 경어법적 대우가 낮은 이유는 '중립적 거리 요인'의 작용 때문이다. 즉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예인에게서 느끼는 '긍정적 거리'나 범죄인 등에게서 느끼는 '부정적 거리'와는 달리 감정적인 면에서 중립적인 물리적, 심리적 거리 때문에 높임 형식의 사용이 제약을 받는 것이다. '중립적 거리 요인'에 의한 낮은 대우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복(1997나:110-121)을 참조할 수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음에 비해 '내외'는 상대적 빈도가 낮은 점 때문이다. 누구나 사용하는 형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형식을 쓸 때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둘째, '부부'는 의미가 객관적, 직접적인데 비해 '내외'는 비유적, 간접적인 점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보다 전통적 거처와 관련된 공간 관계에 비유한 간접 표현인 '내외'가 보다 점잖은 말이라 생각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경어법적으로도 높은 기능 부담량을 지녔다고 여긴 결과 '내외'가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⁸⁾ 셋째, '부부'는 대상 인물을 더 높이고자 할 때 마땅한 형식이 없지만 '내외'는 의존명사 '분'이 덧붙은 '내외분'이 따로 있어 상황에 따라 대통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 등의 고위직 인물들이나 가족 안의 상위자들에게 '내외분'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내외'만 쓰더라도 화자들이 실제로는 '내외분'의 의미로 쓰는 일이 많아 보인다. '내외'와 높임 형식 '분'의 빈번한 결합적 분포의 결과 '분'의 높임 기능이 '내외'에까지 파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기능적 잔상(殘像) 효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내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전용말로 확고히 뿌리를 내렸고 그것은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면에서 '부부'와 상보적 분포를 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5. 맺음말

우리말에서 결혼한 남녀를 함께 부르는 말인 '부부'와 '내외'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빈도 차이는 있지만 사용상의 제약이나 구별 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지칭 대상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두 말을 철저히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특별히 대우하기 위해 총리 이하의 인물들과 구별하여 대통령에게만 '내

18) 김동수(1983)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표현을 보다 정중하게 하기 위하여 에두르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서 그 예로 '드시였다'를 들었다. '먹다'보다는 '(수저를) 들다'가 더 정중한 표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외'를 '전용말'로 일관되게 사용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교용'으로 국가원수는 물론이고 총리, 주 총리, 시장에게도 '내외'를 철저하게 사용하였다. 지칭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두 낱말의 분포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어휘적 의미나 개념이 비슷한 말이라 하더라도 실제 쓰임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기능 및 분포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부'와 '내외'의 분포 차이는 화자들의 실제적 관계에서의 지위 차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려는 강한 욕구의 반영이며, 말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용법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대통령에게 '내외'나 '내외분'을 붙여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함으로써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한층 더 내세우려는 전략이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파악된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두 낱말 외에도 이러한 사용상의 분포 차이를 보이는 동의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의 연구도 우리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의 한 좋은 영역이라 하겠다.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사용하는 말이나 대통령이 국민이나 외국 방문자들에게 사용하는 말은 용법의 특별함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연설할 때 종결어미에서는 최고 단계인 하십시오체를 쓰면서도 왜 1인칭 대명사에서는 언제나 '나'를 쓰는지, "대통령님이 말씀했다"는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등 흥미로운 점이 많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도 모두 '새 궁중말'의 범주에 들 수 있겠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 대구대학교 동양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김동수(1983) 『조선말례절법』,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김종훈 편(1984) 『국어 경어법 연구』, 집문당.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운평어문연구소 편(1991)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이정복(1993) 「경어법 요소의 기능 부담량과 쓰임에 대하여」, 『해양문학과 국어국문학—양전 이용욱 교수 환락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이정복(1997가) 「남북한 보도방송의 경어법 연구」, 『KBS 한국어 연구논문집』 46,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 이정복(1997나) 「방송언어의 가리킴말에 나타난 '힘'과 '거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2000) 「머리말 텍스트 속의 감사 표현과 객체 경어법」, 『국어학』 36, 국어학회.
- 이정복(2001가) 「남북한 정상에 대한 언론의 경어법 사용 분석」,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 이정복(2001나)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태학사.
- 이정복(2001다) 「복수 인플에 대한 경어법 사용 연구」,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 이희두(2000) 『국어존칭형태의 변화과정 연구』, 보고서.
- 이희승 편(1961/1982)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민중서림.
- 임홍빈(1990) 「어휘적 대우와 대우법 체계의 문제」, 『국어학 논문집—강신항 교수 회갑기념』, 태학사.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 조남호(1998) 「내외 개념어의 변천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Abstract>

The Sociolinguistic Distribution of 'Bubu' and 'Naewoi'

Lee, Jeong-b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ociolinguistic distribution of 'bubu'(man and wife) and 'naewoi'(wife and man) from linguistic material of real usage. We examined closely social factors and situations in connection with usage of two words. The second chapter analyzes the meaning of them. And the third chapter analyzes usage and distribution of them with a case study and statistical method. The data dealt here is 'Kaist corpus of modern Korean', 'Articles of some papers', 'Press release of Cheongwadae(the President Mansion of Korea)'.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ubu' and 'naewoi' in the meaning but there is sufficient difference in the real usage. The result of analyzing usage is as follows. Number one, the frequency of use of 'bubu' is about five times as high as that of 'naewoi' in the whole data. Its meaning is that 'bubu' is more common form than 'naewoi'. Number two, two words are used widely without regard to status of referent or background of the times in the 'Kaist corpus of modern Korean', 'Articles of some papers'. Number three, they use discriminatively and consistently 'naewoi' to the President of Korea and 'bubu' to the prime minister, ministers, etc. in the 'Press release of Cheongwadae'. Number four, they use consistently 'naewoi' to the President of foreign countries and what is more the governor of a state, a mayor, etc.

in the 'Press release of Cheongwadae'.

As a result of analysis, though 'bubu' and 'naewoi' are much alike in the meaning or concept, they are able to have large difference of sociolinguistic function and distribution in the real usage. Such fact shows that speakers have strong desire to express linguistically the difference of status in the real relation, and words are able to get a new usage according to an intention or a purpose of speakers. It was conformed that they consolidate the consciousness which the President differs wi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authority as the chief of state by differential use of 'naewoi'. We argued that 'naewoi' or 'naewoi-bun(honorific suffix)' used to the President is a 'presidential language' or 'new court language' in this paper.